봉封해지고 사후에는 왕王의 특명特命으로 예장禮葬되어 시호諡號를 받고 묘역墓域과 제전祭田의 사패賜牌를 받았으나 뒤에 병화兵火를 겪으며 묘소가 실수失守되었다. 아조我朝의 정조조正祖朝에 이르러 신축년辛丑年(1781)에 본향本鄕의 사인士人 송계일宋啓日이 묘지석墓誌石을 증거證據하여 비로소 봉축수비封築樹碑를 더하고 향화香火를 받든 것이 지금에 이르러 수백년數百年이 되었다. 옛 비碑가 갈라지고 닳아 후손이 모두 정민貞珉(비석碑石)을 바꾸어 세우고자 하며 창현昌鉉에게 명하여 글을 지으라 하였다. 그윽히 헤아리건대 공公은 문탄공文坦公의 큰 서업緖業을 이어받고 일찍 시서詩書와 예악禮樂을 전수받아 재보宰輔의 지위를 뒤이어 중동양국中東兩國을 출입하면서 위망位望이 융혁隆赫하니 그 환업宦業(벼슬)이 이미 성대盛大하였는데 충성으로 절혜節惠를 받아 훈부勳府에 책명策名이 되고 이증 贈의 은전恩典을 베푼 것이 지극히 두터웠으니 그 충훈忠勳의 위대偉大함을 가히 알겠으니 마땅히 공업功業으로 표저表著着한 것이 있겠으나 역사로 전하는 기술記述이 없고 가전家傳에도 또한 궐략闕略되어 그 실적實蹟과 더불어 그 드러난 덕망과 생졸년生卒年도 계고稽考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혹은 국조國朝(조선조)에서 충훈忠勳을 받은 것이라 의심하나 혹은 절개節槪를 망복罔僕하였다고 하는 자까지 있으나 공의 여서女壻 목은牧隱 이문정공李文靖公의 배소외구고분묘시서拜掃外舅姑墳墓詩序를 고찰考察하면 공이 몰沒한 것이 정혁鼎革(왕조가 바뀌는 혁명)의 전인 것이 이미 명백하므로 가려지기를 기다릴 것이 없다. 이로 말미암아 생각건대 고려말高麗末에 국가國家가 다사多事하여 신돈辛旽의 변變과 홍건적紅巾賊의 난亂이 다 사직社稷의 안위安危에 관계되었은즉 공이 안사安社의 훈勳에 책명된 것이 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훈업勳業이 역양歷敭된 것이 대개 이른 연세인데 이를 스스로 자세藉勢하지 않았으며, 만년晩年에는 임금은 혼매昏昧하고 정사政事는 어지러워 나라의 위태로움이 날로 심하자 스스로 작은 나무 하나가 큰 집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고 구원丘園에 은퇴隱退하여 침잠沈潛으로 몸을 숨긴 가운데 홀로 종생終生한 고로 사서史書에 일컬음이 없는 게 아닌가 한다. 다만 목천木川 황공黃公 윤석胤錫이 지은 실록實錄을 살펴보면 공公이 만년晩年에 내성현奈城縣에 은거隱居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부안扶安이라 하고 있으나 어디에서 증거證據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전주全州의 객관客館에 공의 제영題詠 한 편篇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으며 또한 부안扶安이 금구金溝와 접한 지역인지라 그 말이 혹 비슷한 것 같으나 공의 실적實蹟을 끝내 밝히는 데는 미진한즉 진실로 궐락闕落되고 의심스런 일을 경계하기를 범하면서 감히 칭술稱述할 수 없어 다만 가보家譜에 소재所載한 것에 근거하여 그 관작官爵과 봉시封諡와 성계姓系 및 자손만을 묘천墓阡에 표함이 가한가 한다. 우리 권씨權氏가 본관本貫을 안동安東으로 하여 태사太師 휘諱 행幸이 원조元祖인데 십세十世를 전傳하여 휘諱 수홍守洪이 있어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상장군上將軍이니 곧 공公의 高祖이다. 증조曾祖 휘諱 자여子輿는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병부상서兵部尙書이고 조祖 휘諱 책은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첨의평리僉議評理이다. 고考 문탄공文坦公은 중조中朝(중국 조정)의 태자 좌찬선太子左贊善이고 본조本朝에서는 추성동덕협찬공신推誠同德協贊功臣 삼한삼중대광三韓三重大匡 도첨의우정승都僉議右政丞으로 예천부원군醴泉府院君에 봉해졌다. 비 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평강채씨平康蔡氏 첨의중찬僉議中贊 모謨의 여女이다. 배配 칠원윤씨漆原尹氏는 전서典書 길손吉孫의 여女인데 묘墓는 실전失傳되었으며 이남오녀二男五女를 낳으니 남男의 장長 사종嗣宗은 정순대부正順大夫 판종정시사判宗正寺事이고 차次 계용季容은 전법판서典法判書 예천군醴泉君이다. 여女의 장長은 재신宰臣 전분全賁에게, 차次는 군사郡事 유혜방柳惠芳에게, 차次는 여산군驪山君 민근閔瑾에게, 차次는 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 차次는 전서典書 김윤철金允轍에게 출가하였다. 사종嗣宗이 4남2녀를 낳으니 남男의 장長은 집중執中으로 판사判事이고 차次 집경執經은 지신사知申事, 차次 집지執智는 예빈시사禮賓寺事, 차次 집덕執德은 중훈대부中訓大夫 군기감정軍器監正이다. 여女의 장長은 판밀직判密直 윤소관尹所觀에게, 차次는 좌찬성左贊成 정역鄭易에게 출가했다. 계용季容이 오남五男을 낳으니 장長 총總은 부사府使이고 차次 수綏는 목사牧使, 차次 부孚는 진사進士, 차次 완緩은 예문제학藝文提學, 차次 윤綸은 사인士人이다. 증현曾玄 이하以下는 번성繁盛하여 다 기록하지 못하는데 혹은 작위爵位와 공명功名으로 현달顯達하고 혹은 덕업德業과 문장文章으로 드러나니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가 없다. 이것은 어찌 근원根源이 깊어 흐름이 길고 뿌리가 단단하여 가지가 무성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오호라, 무성하도다. 감히 이에 이어 새겨 이른다.

혁혁赫赫하신 문탄공文坦公이 큰 이름 세상에 드리우니, 공公이 그 서업緖業 받들어 아름다운 발자국 이으셨네. 중국과 동국東國 드나들며 청환淸宦의 직질職秩 거듭 드날리고, 이른 연세 재상에 올라 융성한 여망輿望으로 충실한 행적이라. 그 공훈 어떠하였는가, 안사安社에 정책定策이요, 그 응보應報 어떠하였는가, 토지와 작위를 더함이었네. 세대가 아득히 지나 사서史書에도 궐략闕略되고 사적事蹟이 인몰湮沒되어 징험할 수 없음이 기杞나라·송宋나라 역사와 같으나 그 실實이 이미 무저茂著하니 빛나지 않음을 어찌 근심하리오, 음덕蔭德이 크게 두터워 그 후손을 비호庇護하나니. 아아, 이곳 호남湖南은 퇴귀退歸하여 은거隱居하신 고장이라 유적을 더듬고 문질러 찾고 완산부完山府에는 시장詩章이 있네. 역양 陽의 언덕에 물은 곱고 산은 밝아 유택幽宅은 길이 평안하시고 혜택은 흘러 만년을 가리.

후손 창현昌鉉 삼가 짓고, 후손 옥현玉鉉 삼가 쓰다. 갑진甲辰(1964년) 8월일에 세우다.

다음은 후손 만재萬齋 재춘載春이 지은 묘하의 재사 모원재이건기慕遠齋移建記이다.

모원재이건기慕遠齋移建記

오호嗚乎 차금구현상리후此金溝縣上里後 부감원負坎原 아선조충헌부군我先祖忠憲府君의리장야衣履藏也 거금흡육백유년소距今恰六百有年所 이중간누경병선而中間累經兵 잠실기전暫失其傳 선인서염인적거旋因西髯人的據 득기구이개수봉得其舊而改樹封 건봉힐향虔奉 금차수백년의今且數百年矣 구유병사舊有丙舍 편왈모원재扁曰慕遠齋 사후유일재중수嗣後有一再重修 이거갑신춘而去甲申春 이지불리以地不利 이건우구지초좌移建于舊址稍左 시구제파장視舊制頗壯 이족가위무폐후관而足可謂無廢後觀 기락지旣落之 종부로명재춘기기사宗父老命載春記其事 고재춘하감당顧載春何敢當 망절부묘중유사영지의妄 附廟中有事榮之義 근피석이복명왈謹避席而復命曰 서왈무풍우닐書曰無豊于㊀ 닐녜제명야㊀Ь祭名也 연즉차거然則此擧 칭묘근제이언稱廟近祭而言 비위원조지원야제야非謂遠祖之原野祭也 연상사지然嘗思之 원야시체백소기原野是體魄所寄 묘시신혼소재廟是神魂所在 성인제례聖人制禮 중신혼이경체백고重神魂而輕體魄故 원야지례유강쇄어묘례이原野之禮有降殺於廟禮耳 유자성봉선지정즉惟子姓奉先之情則 신혼체백神魂體魄 공불가유차수관恐不可有差殊觀 역불가이세원근亦不可以世遠近 이기건봉의절유심근홀야而其虔奉儀節有甚勤忽也 심의審矣 시이원조是以遠祖 수조천우묘이체백소기雖 遷于廟而體魄所寄 필유제必有祭 우방치병사又傍置丙舍 임제치재우차臨祭致齋于此 차기비향소위此豈非向所謂 자성봉선지정즉子姓奉先之情則 신혼체백神魂體魄 불가차수관자야不可差殊

10면으로 계속

능동칼럼

부귀사해富貴四海

權 琪 奉
편집고문

'부귀富貴한 것이 사해四海에 미치더라도 이를 지키는 것은 겸손으로써 하라(부귀사해富貴四海 수지이겸守之以謙)'하였다. 공자의 말이다. 겸손해야 이것을 지켜낸다 하였으니 그 미덕의 무게가 사해에 미치는 부귀와 같다고 볼 것이다.

은殷나라의 현인 상용商容이 병으로 눕자 노자老子가 찾아가 교훈으로 남길 말씀을 청했다. 이에 상용이 입을 벌리며 '내 혀가 남아 있는가' 하고 물었다. 노자가 남아 있다고 하자 다시 '내 이가 있는가' 물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므로 노자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상용이 노자에게 뭘 알겠느냐고 물었다. 노자가 '굳센 것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은 남는다는 말씀인가요?' 하니 상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하의 일을 다 말했다' 하였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는 역설의 진리를 말한 것이다.

노자가 실제 상용이라는 사람에게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도덕경道德經에는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자는 밝을 수 없고, 스스로 옳은 자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내세우는 자 공로가 없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 오래가지 못한다' 하였다. 근신의 소중함을 전형화한 말이다.

방촌尨村 황희黃喜와 함께 세종성대의 명재상으로 이름 높은 고불古佛 맹사성孟思誠의 겸양은 길이 전하는 일화로 빛을 잃지 않고 있다. 그가 소시 열아홉에 장원급제하고 스물에 파주坡州군수가 되어 한 선사禪師를 찾아가 어찌하면 선정善政을 베풀지 물었다. 선사가 '나쁜 일을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 대답하자 맹사성이 그만 골내는 빛을 숨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사가 가더라도 녹차는 한잔 하고 가라면서 주저앉히고 잔에 넘치도록 녹차를 부었다. 보다 못한 맹사성이 녹차가 넘쳐 방바닥이 흥건하잖느냐 소리치자 선사가 껄껄 웃으며 '녹차가 넘어 방바닥 젖는 것은 알면서 어찌 지식이 넘쳐 인성 해치는 것은 모르시오?' 하였다. 이에 젊은 객기의 맹사성은 요즘으로 치면 의표意表에 한 방을 먹은 터라, 당황하고 면괴스러워 허둥거리며 나오다 이마로 문미門楣를 드리받고 말았다. 선사가 또 웃으며 '고개를 숙이면 부딪칠 일이 없지요' 하고 그를 보냈다. 이로부터 맹사성은 그 몸에서 자만심을 버리고 겸양을 익히고 궁행躬行하기 시작했다.

서양의 지혜로운 명군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하였다. 남을 섬김으로써 제가 섬김받는 이치와 같다.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과공過恭은 비례非禮라 하였다. 남을 존중하기 위해 자기를 드러내기를 아끼는 진정한 소통의 방식이 겸손이기도 하다. 알량한 재주를 과장하지 못해 안달하며 수단과 체면을 가리지 않는 세태, 남보다 조금만 나으면 그 장점을 극대화하기에만 혈안인 사람이 너무 많다. 또한 그것이 솔직한 자기계발인 것처럼 교육계에서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모른다.

부귀가 사해에 미친다는 것은 부유하고 존귀한 것이 온 누리에 가득찬다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움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이제 부강해지다 보니 부귀가 사해에 미치는 재벌가가 상당히 많아 날로달로 수효를 더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지는 사람의 부귀는 날로 더하고 가지지 못하는 자의 상대적 빈곤은 갈수록 심하여 이른바 '양극화 문제'로 나라가 몸살을 앓느라 영일寧日이 없다. 그러면서 부귀한 사람들의 겸손한 행실에 대한 일화를 별로 듣지 못한다. 부귀가 사해에 미치면서도 또한 겸손으로 그 인품이 환하게 빛나 '노사간의 극한 대치 같은 일은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신문 같은 데서 더러 보았으면 좋겠다.